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중공지역화 방지를 위한 은총의숲 만들기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산상변화주일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거룩 거룩 거룩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9(통53). 하늘에 가득 찬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민족의 명절인 설날 아침에 청과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혼의 고향이 되시는 주님을 찾아 나온 이들을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십시오. 바쁘고 고된 세상살이에 지친 영혼을 위로해주시고 새로운 힘을 부어주십시오.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통해 그동안 잊고 살아온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인간됨의 도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충돌이 끊이지 않는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념과 이념이 부딪히고 주장과 주장이 충돌하며 사회의 긴장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진통이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역사를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회의 구성원들 또한 좀 더 주체적이고 책임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눅3:22	인도자
♠ 교 독 문 85. 요한1서 4장	다함께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장영숙 전도사
응 답 송	찬양대
찬 양 338(통364). 내 주를 가까이	다함께
성경봉독 출34:29-35	홍순구 권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모세의 뿔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함께

- 찬 송 484(통533).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다함께
- ♠ 봉 헌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담임목사
공동체 소식 담임목사
-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자신만의 영광을 구하며 살지 마십시오. 부질없는 자랑을 멈추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사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남들에게 그럴듯해 보이기 위해 자신을 과장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부끄럽게 되돌아봅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이제는 몸과 마음을 낮추고 살겠습니다. 주님보다 자신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겸손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집회
가족과 함께	에베소서(교회 바로세우기) 공부
	기도 : 박혜경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성운 전도사	오재환 선생	염철민 학생
	김기석 목사	조병무 장로	김 극 집사

2월	영접위원	한상익 하현철 정원석 김현영 박경원 서정순
	헌금위원	한완식 문영혜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조록의 자인고비(慈仁考碑)

조록 선생(1649~1714)은 조선 인조 때 증부 참봉 조유증(趙惟曾)의 넷째 아들로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에서 태어났으며, 삼봉리에 선생의 생가가 있다. 선생은 평생을 부지런하게 일하고 절약하여 구두쇠라는 말을 들으면서 만석꾼의 재산을 모았다. 선생이 회갑을 맞아 당시 전라 경상도 지역에 심한 가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기근민들에게 그 동안 모은 재산을 아끼지 않고 많은 도움을 주었다. 선생의 도움을 받은 기근민들이 선생의 고마운 뜻으로 공을 기리고자 자인고비(慈仁考碑)라는 송덕비를 세웠는데 ‘자인고’(慈仁考)는 나를 낳아준 사람도 부모지만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도와준 것 또한 부모라 하여 조록 선생이 어려운 이웃을 도와 이들을 살게 해주었기 때문에 사랑스럽고 어질기가 부모 같다는 뜻을 명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경상 전라 지방의 관리들이 선생의 공을 조정에 상소하여 정3품에 해당하는 가자(加資)의 벼슬이 하사되었으나 선생께서는 내 남은 재산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을 뿐인데 그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냐며 끝까지 벼슬을 사양했다고 한다. 평생 동안을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자신이나 후손들이 호의호식 하지 않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에게 아낌없이 도와주었던 선생의 근검 절약정신과 자선사업의 행적은 우리 민족의 자랑이다.

그는 장독에 빠진 날파리 다리에 묻은 간장이 아깝다며 단양 장벽루까지 쫓아가 잡아서 다리에 묻은 간장을 빨아 먹었던 인물, 그는 남의 집 머슴을 살고 샷짐을 저서 입에 풀칠을 했다고 한다. 손발이 닳도록 열심히 일하던 어느 날 그는 길가에서 계란 하나를 주웠다. 그 계란에서 암병아리가 나왔고 그 암탉이 낳는 병아리마다 암놈이라 그의 재산은 하루하루 불어났고, 그 뒤로 무슨 일이든 손만 대면 잘돼서 만석지가 부자가 되었는데 그는 재산이 많아질수록 지독한 구두쇠짓을 했다고 한다.

그 뒤 조록은 신세가 활짝 펴는데, 어느 날 밤 조록에게 하인이 급히 달려와 족제비가 닭 한 마리를 물고 갔다고 보고했는데 그는 하늘이 준 복이다하고 장차 재물이 나가려는 징조라 생각했던지, 재물이 빠져나갈 때는 그 이유가 따로 있는 법이니 이제부터 돈을 제대로 잘 써야겠구나 생각했다. 다음 날부터 그는 동네 사람들을 위해 돼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고 홍수를 대비해 독을 쌓았고, 그뿐 아니라 논밭을 가난한 농부들에게 골고루 나눠 주었다. 영호남 지방에 흉년이 들자 곳간의 곡식을 풀어 굶주린 백성을 구했고, 영조는 벼슬을 내리고 그 공을 기려 자린고비(어질고 자애로움을 기리는 비)를 세워 주었다고 한다.

65세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 그는 유산 하나 못 받은 아들에게 “내 복은 내가 다 누리고 가니, 네 복은 네가 타서 살아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정말로 아름다운 삶이다. 우리 조상들은 부를 하늘이 내린 복으로 보았고 단순히 물질의 축적으로 보지 않았다. 그러기에 부가 선하게 사용되는 것을 도왔다. 부의 세습이 노골화되고 가난이 대물림되는 우리의 현실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가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자린고비는 우리에게 복된 길을 제시해 준다.

- 「삼」 31호 중에서

(이 조록 선생의 자린고비 이야기 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천정의 조기반찬 이야기이다. 어느 날 아이들이 조기 반찬이 먹고 싶다고 애원하자 조기 한 마리를 사다가 천정에 매달아 놓고 밥 한 숟갈 먹고 한 번 쳐다보라고 하였다. 큰 자식 놈이 밥 한 숟가락을 떠 넣고 두 번 쳐다보았다가 야단을 맞았다.)

밥, 그 밥 한 그릇의 사랑이여 용서여

이선관

여보야
밥 안 먹었지
이리 와서 밥 같이 먹자
김이 난다
식기 전에 얼른 와서
밥 같이 나눠먹자
마주 보면서 밥 같이 나눠 먹으면
눈빛만 보고도
지난 오십 년 동안 침전된 미운 앙금은
봄눈 녹듯이 녹아내릴 것 같애
우리 서로 용서가 될 것 같애
여보야
밥 안 먹었지
이리 와서 밥 같이 먹자
밥, 그 한 그릇의 사랑이여 용서여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해경	

◇ 헌금영수기 ◇

십일조헌금:

윤정덕 구성실 김순복 전영웅 김용길 최영혜 문복순 최현선 백요현
 서원금 윤미경 윤수진 이예정 임고운 정복순 김성한 조영순 송의섭
 김민화 김종락 박영신 전세종 김정민 최기찬 강수미 손성현 이우원
 전해리 박지인 김혜영 김신옥 원인해 이한림 김명희 김정애 안정숙
 옥귀희 안종일 정현주

월정헌금:

고속이 김미순 김수진 김승현 김영순 김종문 지명주 김종철 고영애
 문금석 김정섭 윤성종 김윤정 이성범 이소순 이정은 전영자 정두리
 조순덕 이수정 배재경 송동준 김진경 박인혁 한정애 무명

감사헌금:

문복순 오정숙 전성오 전세종 김정민 김주경 무명

생일감사헌금

김민화

녹색꿈헌금

윤여민 임보람 최경미 정희은 김기석 김희우 무명

속명	인도자	속장	모인곳	다음장소
예루살렘	장혜숙	박성실	섬	연합속회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안디옥	임정자	최경미		
가나안	문영혜	이명희		
갈릴리	안정숙	진정숙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시온	박효선	허정윤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나사렛	정영선	백혜숙		
갈라디아	유경순	김수진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설날** : 오늘은 민족의 명절 설날입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집회는 쉽니다.
2. **성회 수요일** : 이번 주 수요일(17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입니다.
3. **연합속회** : 이번 주 금요일(19일)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속회 개학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인도 : 인도자 식사준비 : 속장
4. **청년부 겨울 수련회** : 이번 주 19, 20일 개척자들 샘터(양평)에서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열립니다. 교회에서 19일 저녁 7시에 출발합니다.
5. **장례** : 광혜자 권사님 어머님께서 지난 9일 별세하셔서 장례를 엄수했습니다.
6. **신앙실천** : 명절을 지내며 마련한 음식이 쓰레기가 되어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십시오.

* 식당 봉사 : 예루살렘 속 (다음 주 : 예루살렘 속)

* 설거지 봉사 : 정희은 전충길 남창모 (다음 주 : 남창모 전충길 연태호)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